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27 광주, 숙박난 풀린다



광주 최초의 특1급 호텔로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상무지구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AMJ개발이 추진 중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의 특급호텔 조감도.



특1급 호텔로 리모델링이 한창인 광주무등파크호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까지 특1급 호텔 3곳 잇단 개관

광주시는 '국제 회의의 도시'로 지정됐음에도 대형 숙박시설 부족으로 국제대회나 행사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패에도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 부족이 한 몫했다. 외지 관광객과 업무를 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기업인·상공인들도 열악한 호텔 여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 도심에 내년까지 3개의 특1급 호텔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500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도 들어설 예정이다.

우선 세계적 호텔체인인 라마다 인터내셔널(Ramada International)은 상무지구 롯데마트 인근에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을 오는 9월 개관하기 위해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다.

17층 규모로 120개 객실을 보유한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은 지난 달 말부터 일부 객실을 가동하고 부분 영업에 들어갔다. 이 호텔이 오는 9월 정식 개관하면 광주지역 최초의 특1급 호텔이 되는 셈

라마다 광주호텔·더 머제스티호텔 9월 문 열어

독특한 외관 상무지구 특급호텔 내년 10월 준공

이다. 부대 시설로는 스파와 웰빙라운지, 웨딩·연회장, 비즈니스클럽, 와인바와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동림종합건설(주)이 시공 중인 이 호텔은 내·외관의 설계를 세계적인 호텔·레스토랑·스파 등을 디자인한 해외업체가 맡았으며 국내 호텔업계 베테랑급 실무진을 스카우트해 특1급 호텔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 무등파크호텔은 지난 5월부터 100여여원을 투입, 특1급 호텔을 목표로 3개월째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117개의 객실을 갖춘 무등파크호텔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객실과 외벽, 1층 로비를 전면 새단장한 뒤 9월 초 '더 머제스티 호텔 앤 리조트(THE

MAJESTY HOTEL & RESORT)'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할 계획이다. 호텔측은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무료 조식(2인)과 사우나·무등산 관광리프트카 50% 할인을 포함 스탠다드 객실을 9만9천원에 제공하는 '2008 해피 패밀리 썸머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이들 두 호텔이 개장하면 광주는 연내 특1급 호텔 2곳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AMJ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의 특급호텔까지 준공되면 특1급 호텔이 3곳으로 늘게 된다.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이 호텔은 1만1천600여㎡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200실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광주역 부근에는 오는 2010년까지 한·중·일 비즈니스맨들을 겨냥한 대규모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설 전망이다. 일본과 부산 등지에 190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비즈니스호텔 체인인 토요코인(Toyoko-Inn)은 한국법인인 토요코인코리아(주)를 통해 최근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앞 2천㎡(606평)의 호텔 부지를 매입했다.

지난 4월 부산 중앙동에 국내 1호점을 오픈한 토요코인코리아측은 이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25층, 연면적 9천여평 규모로 490개의 객실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호텔은 오는 8월께 착공해 2010년 준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가 호텔인 토요코인은 KTX를 이용해 광주를 찾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 비즈니스맨들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호텔 중 신양파크호텔과 프라도호텔이 특2급이며, 규모면에서 이들보다 더 큰 무등파크호텔도 1등급이다. 이들을 포함 관광호텔 20여곳이 영업 중이지만 특1급 호텔이 없어 국내·외 대형 행사 때마다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남도 전통음식 맛 보세요

광주시, 외국인 상대 체험상품 개발

광주시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도음식 체험상품을 상설 운영하고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는 홍보용 CD를 제작한다.

광주시는 21일 남도 맛의 관광자원화와 '미향'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남도 전통음식을 체험상품으로 개발,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상품을 지난 17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중국인 관광객 40명을 대상으로 첫 운영한데 이어 하반기중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일본, 미주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광주의 5미(味)인 송정리 떡갈비, 광주 김치, 전라도 전통음식인 산채비빔밥, 꽃 송편, 이마지오리 등을 알릴 테마로 정해 외국인 관광객이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음식박물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을 위해 1층과 3층에 특산물 매장과 상설 사료관을 마련해 문화상품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체험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외래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2008 지자체 해외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wag-nae-yeong-gyo-gu-hak' (Kwag-nae-yeong-gyo-gu-hak) featuring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including English education, traditional food, and local produc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ates.